

유대인 지혜의 습관

무엇이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는가



CHALLAH



TORAH



DREIDEL



OLIVE OIL



HANUKKAH



김정완 지음



SUGANIYOT



GELT



RABBI



TEN COMMANDMENTS



SHOFAR



SYNAGOGUE



HAMSA

유대인 지혜의 습관

무엇이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는가

김정완 지음



좋은습관연구소

유대인들에게 습관이란

유대인들에게는 몸과 영혼의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는 ‘율법(律法)’이 있다. 율법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 즉,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 좋은 인성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만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저절로 좋은 인성까지도 갖추게 된다고 믿는다.

탈무드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Sotah 17a).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ish, איש)’, 여자를 ‘이샤(isha, אישה)’라고 부른다.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불이

라는 뜻의 ‘에쉬(esh, עֶשֶׂה)’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은 일종의 에너지이다. 적절히 통제하여 잘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큰 재앙이 된다. 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난로로 불을 감싸고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의 불은 물을 끓이는 데도 사용하고 차가운 방을 데우는 데에도 쓴다. 사람도 좋은 인격을 갖추어야 불의 에너지를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다. 이 인격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다.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한다.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가 아는 랍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다만 유혹에 약한 면이 있다고 한다. 나쁜 것에 끌릴 확률이 높아서 죄에 경도되기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의 제1 천성을 그대로 두면 마치 방치된 불처럼 개인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에 모든 공동체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불의 에너지를 다스리려 한다. 이때 교육은 학습이 주가 되는데 좋은 것을 배우고(學) 익히는(習) 과정을 통해서 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은 이처럼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에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반복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다. 13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세 번 기도해야 하고, 모든 유대인

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모든 유대 기혼 여성들은 매월 몸을 정결탕에 담가야 하며, 모든 유대인들은 매년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율법들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좋은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다.

이 책을 통해 유대인들의 율법과 계명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에 뿌리내린 그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그 안에 감춰진 좋은 습관을 발견하고 이를 우리 삶의 지혜로 응용해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습관은 쉽게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 물방울 앞에 뚫리지 않는 바위는 없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탁월함으로 이끈다. 유대인들의 좋은 습관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욕망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워보자. 그것이 곧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경전과 서책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관점 등을 미리 간단히 요약했다.

유대인, 유태인

유대인은 영문 Judea를 우리 말로 옮긴 표기이다. 반면, 유태인(猶太人)은 한자어이다. 과거에는 한자어 표기인 유태인을 더 많이 썼지만 최근 추세는 원발음을 그대로 따른다는 관점에서 유대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

토라, 미쉬나, 미드라시, 탈무드의 관계

토라(Torah)는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인 창세기, 출

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총 다섯 권의 책을 한데 묶어 이르는 말이다. BC(기원전) 13세기경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한다.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의 모세 오경을 이르는 성문(成文) 토라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 오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전(口傳) 토라가 그것이다. 성문 토라는 글로 전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구전 토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 토라 모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미드라시(Midrash)는 성문 토라의 주석서이다. 미쉬나(Mishnah)는 AD(기원후, 서기) 200년경에 랍비 예후다 하나시(Yehudah ha-Nasi, 135-217)의 주도로 수많은 랍비들이 참여해 기억에만 의존해오던 구전 토라를 책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미쉬나는 여러모로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를 명확히 하고자 후대 랍비들이 약 300년에 걸쳐 질문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게마라(Gemara)이다. 이때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다시 책으로 펴냈는데 그것이 탈무드(Talmud)이다.

탈무드에는 두 종류가 있다.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반 이스라엘 지역에서 완성된 예루살렘 탈무드(탈무드 예루살미(Talmud Yerushalmi))가 있다. 다시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6세기 경에 바빌론 지역(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완성된 바빌로니언 탈

무드(탈무드 바블리(Talmud Bavli))가 있다. 이중 바빌로니언 탈무드가 훨씬 자세하고 양이 방대하다. 그리고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언 탈무드를 더 선호한다.

랍비

랍비는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쳐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일종의 선생님 같은 역할이다. 즉, 현명한 사람이지만 무슨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는 아니다. 그래서 랍비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랍비들도 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의 역할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과거에는 분쟁 조정자 혹은 판단자의 역할을 했다. 책에서는 고대나 중세 시대의 랍비의 경우 생물 연대를 표기했고 생존 랍비의 경우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랍비들을 유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신뢰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책에 사용된 현인, 현자, 토라 학자 등은 모두 랍비를 일컫는 말이다.

원전 표기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의 습관이 유래된 서책만 괄호를 사용해서 출처를 밝혔다. 출처 표기는 히브리어 대신 영문으로 표기했다. 이 책 이후로 원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기 위해선 히브

리어보다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출처 표기는 일반적인 권과 절의 표시 규정을 따랐고, 탈무드는 각 서책의 영문 이름과 폴리오(folio, 짝으로 된 페이지, 탈무드에서는 보통 2a, 2b, 3a, 3b와 같이 짝으로 페이지 표기를 했다)를 표시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 책에 포함된 해석과 해설은 필자인 나의 학습과 랍비로부터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석과 문헌에 대한 기록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이 책에 틀린 내용이 있거나 출처 표기의 오류가 있다면 오로지 나의 부족한 공부 탓이다. 심심한 이해를 구한다.

차례

서문 - 유대인들에게 습관이란	5
일러두기 - 이 책을 읽기 전에	8
질문 - 유대인 최고의 습관	15
대화 - 인격과 의견을 분리할 줄 아는 습관	27
논쟁 - 진실을 탐구하는 습관	32
하브루타 - 최고의 공부 습관	37
기도 - 하루 세 번 나를 돌아보는 습관	43
회개 - 회복과 되돌림의 습관	49
쉼 - 하루를 온전히 쉬는 안식일 습관	55
자선 - 부자의 심장을 갖는 습관	61
돈 - 자녀에게 돈의 철학을 가르치는 습관	69
공정 - 비즈니스를 하는 습관	76
투자 - 분산, 가치, 장기 투자를 하는 습관	84
조화 -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는 습관	92
고난 - 역사를 잊지 않는 습관	98
쾌락 - 이웃, 가족과 함께 기쁨을 즐기는 습관	108

절제 - 욕망을 다루는 습관	112
구별 -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습관	116
힘담 - 말의 힘을 아는 습관	121
감사 - 겸손의 마음을 갖는 습관	128
청결 - 교만을 씻어내는 습관	132
동물 복지 -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습관	138
가족 -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	146
손님 -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습관	152
공동체 - 공동체에 헌신하는 습관	159
 에필로그 -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게 된 이야기	 169
 부록. 유대인 잠언 모음	 175
부록. 유대인 주요 절기	187
부록. 유대인 역사	191
참고 문헌	197

질문

유대인 최고의 습관

질문하는 습관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다. 세계에서 유대인들보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 <탈무드 지혜 교육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서 랍비 마빈 토케이어(Marvin Tokayer)는 5천 년 유대 민족의 교육 비밀을 ‘질문’이라고 했다. 유대인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습관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노벨상이 시작된 1901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유대인 출신 수상자는 무려 210명이나 된다. 그 기간에 노벨상을 받은 개인과 단체는 총 951명이다. 951

명 중에 210명이 유대인이니 무려 2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이 유일하다. 인구수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경우 75만 명 중 1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5,000만 명 중 이제 겨우 1명에 불과하다. 세계 어디를 가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강인하게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은 유대인 교육에 쏠리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시작과 끝은 질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과 함께 질문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성장한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등교하는 자녀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라고 당부하고 하교한 자녀에게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묻는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엄마들은 유대인 엄마들과 다르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유대인 엄마들이 지식의 비판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 엄마들은 지식의 수용적 태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 튀는 아이로 찍혀 교우 관계가 어려워

진다고 여긴다. 그러다보니 우리에게 질문 문화는 낯설고 어색한 문화다. 이는 오랜 문화의 차이로 누가 더 낫다 못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질문하기를 장려하고, 얼마나 양질의 질문을 하느냐로 우수 학생을 평가한다. 이 같은 질문 문화가 지금의 우수한 유대인을 만들었다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교육적 성과가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있다. 지난 2013년 KBS에서는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공부 문화를 조명한 적이 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한국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릴리 마골린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 릴리는 하버드 대학교 3학년이었다. 릴리는 다큐멘터리에서 유대인 수양아버지 힐 마골린으로부터 받았던 교육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릴리는 아버지로부터 늘 질문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그 중에는 “왜?”라는 게임이 있었다.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했다. A와 B가 있다. 먼저 A가 “기차는 길다”와 같이 한 문장을 말하면 B는 “왜?”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A가 답을 하면 다시 B가 “왜?”라고 묻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깊은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릴리 마골린은 말했다. 릴리의 놀라운 학업 성적 뒤에는 유대인 양부모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릴리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에 입사했다고 한다.

구글도 질문하는 문화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기업이다. 구글의 창립자는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인데 이들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는 하나같이 질문이 회사의 주요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두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질문과 토론을 즐기던 친구 사이였다. 그들은 탈무드의 색인 생성 방식을 응용해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1998년에 공동으로 구글을 설립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세계 최고 IT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구글드』라는 책에 따르면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질문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누구하고나 토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때 SNS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구글의 인터뷰 질문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논리력과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는데 다소 황당한 질문들도 있었다. 이 모두는 구글의 질문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독서 습관도 질문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살펴보자. 어느 날 젊고 우수한 학생이 랍비를 찾아왔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탈무드 공부를

했는지 랍비에게 설명하고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말했다. 랍비는 탈무드의 책장을 넘기다가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논쟁이 실려 있었다. 학생은 논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랍비는 “자네는 잘못 알고 있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시 책장을 넘기던 랍비는 또 한 부분은 가리키더니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다. 그것은 더욱 어려운 논쟁을 담고 있는 문제였다. 학생은 거침없이 무엇이 쓰여 있고, 어떤 것이 쟁점이며, 어떤 해석이 도출되었는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랍비는 “자네는 여전히 틀렸네”라고 말했다. 학생이 계속 의아해하자 랍비는 학생에게 자신이 틀렸다고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단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네. 나귀가 아무리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어 봤자 나귀 자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은가. 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질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네.” 책을 읽는 목적을 정보나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닌 질문을 얻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무척 인상 깊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 내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라는 독려의 뜻이 담겨 있다. 세상 어떤 책도 완성

된 게 아니라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창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질문은 신앙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신앙은 믿음인데 질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이다. 질문하는 것을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독교에 이런 관행이 있다 보니 교회에서는 질문하는 것을 결코 장려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던 도마는(요한복음 20:25-26) 의심 많은 신앙인의 전형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로 토라(Torah)가 질문을 장려한다고 믿는다. 토라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다섯 개의 성경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토라는 613개 율법을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반드시 자세히 배우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율법들을 일상 삶에서 지키지 못하게 된다. 토라를 학습하거나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필수 중의 필수인 이유다.



사진 1 - 두루마리 형태의 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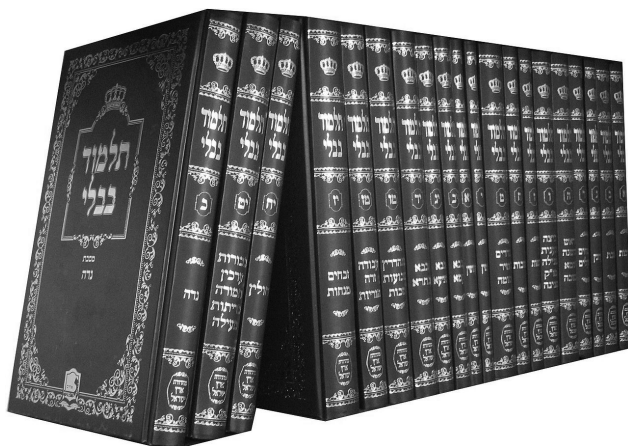


사진 2 - 바빌로니언 탈무드

토라 레위기 10장 16절에는 별 마크가 있다. 이에 대해 탈무드에서는 그 별표가 토라의 한가운데를 의미한다고 말한다(Kiddushin 30a). 재미있는 것은 그 별 마크를 중심으로 앞뒤 글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별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글자가 ווה(다라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묻는다’ 또는 ‘질문하다’이다. 그래서 별표가 있는 구절(וה * וה)을 우리말로 바꾸면 ‘묻고 또 물었다’의 의미가 된다. 즉, 토라의 정중앙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단어가 공교롭게도 ‘묻다’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어서 유대 현자들은 토라 전체가 끊임없이 질문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더욱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제1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질문하라”를 가르친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배움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종교는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통해 율법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달리 할지 정해왔다. 즉,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다 의문이 떠오르면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바르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신앙심이 남달랐던 유대인 우주 비행사가 있었다.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을 벗

어난 그는 지구를 90분마다 한 번씩 돌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샤밧, Shabbat)을 어떻게 지키느냐였다. 유대인들에게는 7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는데, 지구 밖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의 눈에 90분마다 태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므로 이것을 하루로 삼아 지구를 일곱 번 돌 때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이 율법을 우주 공간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지상에 있는 랍비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자 랍비는 지구 날짜로 계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는 다시 지구의 어느 시간대에 맞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고 물었다. 시간대가 정해져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랍비는 그에게 지구에서 가장 마지막 머문 도시, 즉 우주 왕복선을 타기 위해 로켓이 쏘아 올려진 도시의 시간대에 맞춰서 안식일 지키라고 조언해 주었다. 이처럼 율법을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율법을 배울 때나 실천할 때 등 항상 궁금증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수줍음 때문에 묻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탈무드는 이를 호되게 질책한다(Pirkei Avot 2:5). 질문하는 습관과 문화는 유대 문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다면 위에서 사례로 들었던 유대인 우주 비행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랍비에게 질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궁금증을 질문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현대인의 삶은 율법이 만들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매우 복잡다단해졌다. 따라서 토라에서 말하는 삶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질문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를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 나아가 질문은 종교 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교육에도 도입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대인들의 질문 습관을 하나의 교육법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질문은 후천적인 훈련으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질문이 좋다고 알고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습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5년 10월 이스라엘 정부 산하 울프 재단의 리타 벤 데이비드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데이비드 대표는 뛰어난 과학자와 예술

가를 많이 배출하는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이 질문에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 데에는 후천적 노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질문 없는 교실의 책임을 교사에게서 찾았다. “질문이 사라진 조용한 교실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질문이 없는 교실을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고민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또는 그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비단 학교의 선생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여기에 해당된다.

질문은 후천적인 기술이다. 질문은 타고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훈련 받으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질문을 잘하게끔 유도하려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주어진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양질의 질문을 할 때 더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의 근원에는 질문이 있다. 얼마나 올바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혜안을 얻을 수 있다.

하브루타

최고의 공부 습관

지난 2016년 미국 LA에서 랍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LA에 간 목적은 그 랍비가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일행은 장장 11시간의 긴 비행을 거쳐 랍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랍비는 첫 대면에서 멀리서 찾아온 우리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자기가 보던 책 얘기만 한참 동안 하는 게 아닌가! 보통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면 읽던 책도 잠시 멈추고 인사치레를 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그 후 우리는 몇 차례 더 랍비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랍비는 빼놓지 않고 자신이 읽고 있던 책 이야기부터 들려주었다. 한 번은 그가 참석하는 회당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 회당 곳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꽂혀 있길래

내가 무척 놀란 표정을 짓자 랍비는 대뜸 “You don’t know(몰랐어)?” “We are the people of books(우리는 책의 민족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책에 대한 사랑은 이스라엘 현지의 예시바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내가 공부했던 예시바의 여러 공간 중 도서관 역할을 하는 베이트 미드라시에는 온 사방이 토라와 탈무드 관련 책들로 꽉 차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제법 큰 인근의 또 다른 예시바에서도 12세기 필사본 성경 책에서부터 15세기에 만들어진 초창기 인쇄본 토라와 탈무드까지 빼곡히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곳은 학습실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마다에도 책들이 산처럼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지에서 우리를 안내한 랍비는 토라와 탈무드 관련 책만 예시바마다 수만 권이 넘는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들려주었는데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토라가 너무 오래되어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낸다고도 한다. 유대인들의 지독한 책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예시바가 있던 동네 초입의 버스 정류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책 사랑을 볼 수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정류장 뒤편에 무인 책 부스를 설치해 둔 것을 보았다. 주민들 말로는 진열된 책은 누구나 골라 읽고 아무 때나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머물던 예시바의 기숙사 서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곳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어디를 가나 책이 넘쳐났다. 하루는 어느 랍비의 집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거실 서가에 잔뜩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거실이 도서관이었다.

책에 관한 유대 격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책을 너의 벼로 삼고, 책꽃이를 너의 뜰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열매를 따 먹으며, 꽃을 즐기도록 하라.” 그리고 탈무드에는 “너희의 집이 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 (Pirkei Avot 1:4)”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말은 집을 책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유대인은 책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기도 한다. 책을 깨끗이 쓰되 함부로 찢거나 낙서해선 안 되며 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책은 항상 제목이 바로 보이도록 책상에 놓아야 하고 물기가 있는 곳을 피해야 하며 비에 젖지 않도록 품에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경책은 그 위에 다른 책을 올려놓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책에 대한 예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은 책에서 얻은 정보와 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고 가르친다.

유대인들의 독서 습관은 자연스레 하브루타(Havruta)로 이어지고 하브루타는 더 많은 독서 욕구를 자극한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뜻하는 말로 글자 그대로는 ‘우정’이나 ‘동료’를 의미한다. 지금은 동료와 질문과 토론을 통해 공부하는 학습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본문(text)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치열하게 묻고 대답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하브루타는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학습법으로 유대교의 종교 학교인 예시바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브루타의 문화 코드 때문에 유대인들은 쉽게 대화하고 토론하며 결과적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토라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을 익히고 책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13세 이후 중고등 학생 때부터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를 자유롭게 즐길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브루타를 하면서 어떤 사안을 두고 깊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식 부족을 느끼게 된다. 친구와의 논쟁에서 논리가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는 더 많은 독서 욕구로 이어진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할 이야기도 많고 더 깊은 토론

을 할 수가 있다. 때로는 같은 본문을 두고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브루타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 위에서 하브루타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이렇게 차곡차곡 독서력이 쌓이게 되면 훨씬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볼 수 있고 어떤 난관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맨 먼저 짝과 번갈아 가며 텍스트를 두세 번 읽는다. 반복해서 읽을 때는 감정까지 섞어서 연극배우처럼 읽는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본문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덮고 기억나는 내용을 자기 말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텍스트를 다시 펴서 자세히 읽으며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뽑는다. 뽑아낸 질문을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이 갈릴 경우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한다. 이때 합리적인 추론으로 설명하거나 반박하며 토론을 한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처음과 비교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한다. 상대의 좋은 의견과 반박으로 자신의 해석이나 의견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텍스트를 조용히 혼자서 읽고 그것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즉,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소

극적이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며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유대인들의 질문과 논쟁 그리고 독서로 이어지는 하브루타 습관은 유대인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오랜 역사의 수난을 견뎌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브루타를 실천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하브루타가 유행을 하면서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전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교육이나 일상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선

부자의 심장을 갖는 습관

유대인 가정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자녀들에게 ‘쩌다카(Tzedakah, 자선)’를 가르쳐왔다. 어떤 유대인 가정은 여러 개의 현금통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이 등교하기 직전이나 식사를 하기 직전에 동전을 넣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 모두 자녀에게 자선하는 습관을 가르치려는 의도였다.

보통 8개월 영아 때부터 엄마는 아이 손에 동전을 쥐여 주고 자선함에 넣도록 한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용돈을 주고는 돈을 스스로 벌고 관리할 기회를 부여한다. 집에서 부모의 일을 도우면 용돈을 얼마씩 책정해주고 돈은 이웃을 기쁘게 한 뒤에 받는 대가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십 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경영



사진 7 - 유대인 현금함

하는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사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정보,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비즈니스와 관련된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며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받는 증표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친다.

이처럼 자선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경제 교육의 하나다. 유대인들은 본격적인 경제 교육에 앞서 돈의 가치를 먼저 가르친다. 한 번은 한국의 모 신문사 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랍비를 찾아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랍비는 대답 대신 당시 여섯 살이던 어린 아들을 불러 그에게 동전 한 닢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두말 않고 그 동전을 거실 한쪽에 있던 현금함에 넣었다. 랍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돈에 대한 바른 철학이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재물을 돈이라고 생각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본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을 번다고 본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생각한다. 돈을 번다는 것을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본다. 그리고 돈이 욕망의 상징이기는 하나 돈에 욕망을 투영하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랍비는 자기를 위해 빵을 걱정한다면 육체적인 욕망이요 이웃의 빵을 걱정한다면 영적인 욕망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The Book of Mitzvah Volume 1, p.31-32)도 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 이에 랍비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랍비는 그에게 ‘내세에서의 영적인 축복’ 또는 ‘이 세상에서의 부의 축복’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뜻밖에도 후자를 택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분개했다.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모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

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게 누구에게 유익한가? 그건 나에게만 유익할 뿐이네!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부자를 통해서 돕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를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한 돈을 지키는 청지기. 그러니 부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랍비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랍비 이스로엘 살란테르(Yisroel Salanter, 1810-1883)이다. 그는 돈을 소유하는 것은 막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번은 그의 아내가 복권을 한 장 구입하자 그는 즉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나는 아내의 금전적 취득 또는 그로 인하여 영원히 발생하는 어떤 이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랍비 이스로엘의 선언은 아내가 부자가 될 경우 함께 지게 될 의무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선언이었다. 랍비 이스로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그에게 지우시

는 것이다. 그 책임을 완수하려면 도시 곳곳을 살살이 뒤져 극빈자 또는 재원이 부족하여 토라 선생님을 고용할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을 찾아내 돈을 나눠줘야 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The Tzedakah Treasury, p.115).”

유대 현자들에 따르면 모든 부자는 반드시 탐욕의 시험을 거친다고 한다. 그 시험은 대단히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마태복음 10:25)고 했다. 탈무드에는 자기 욕심의 반이라도 만족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Kohélet rabbah 1:13)는 구절이 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다. 이처럼 부는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더할 뿐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의 부는 마치 소금을 뿌리지 않은 고깃덩이처럼 썩고 상해서 자신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만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켄다카를 고기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에 비유하기도 한다. “돈을 보존하는 유일한 소금은 자선을 통하여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Ketubot 66b).” 알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음식의 맛을 내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켄다카를 하게 되면 탐욕을 통제하고 인생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대신 자취를 남겨선 안 된다. 소금이 음식에 녹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듯 켄다카를 할 때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 이 모두가 탈무드의 가르침이다.

유대인들은 부자를 심장에 비유하기도 한다(The Tzedakah Treasury Ch.8). 그래서 부자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돈을 돌게 하는 사람으로 본다. 탐욕에 휩싸인 채 가난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부자는 마치 흘러들어온 피를 자기 것인 양 모으기만 하고 유통하지 않는 심장과 같다. 피를 내보내지 않는 심장은 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부자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흘러간 피는 온몸을 돌고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자선을 행한 부자들은 그 수혜자들인 가난한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자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친다. 그 덕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자선이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선의 기회가 오면 절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 유대 현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당신이 베푸는 자선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언제나 명심하라(The Tzedakah Treasury Ch.8).” 그래서 랍비들은 자선의 기회를 준 가난한 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선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부를 모아야 하는 걸까? 탈무드에는 부자의 조건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Pirkei Avot 4:1).”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부의 많고 적음

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모두가 부자인 셈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베푸는 데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선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자선은 사람의 인품을 고상하게 만들어 준다는 믿음이다. 자선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의 고통과 고난에 깊이 공감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칫 탐욕에 휩싸일 수 있는데 이런 이기적 본능은 파괴적이다. 하지만 자선은 이런 본능을 완화시키고 이타적인 성품을 갖게 한다. 따라서 유대 현자들은 자선을 반복할수록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10만 원을 한 번에 자선하는 것보다 1만 원씩 열 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어떤 사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그 사회의 부자들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기꺼이 기부하려고 애쓴다면 그 사회는 대단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런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국엔 파멸하고 만다. 미국이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한 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는 어차피 영원히 자신에게 머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내 주머니에 부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선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 제일 먼저 자선을 배운다. 자선하는 습관의 중요성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 자선은 꼭 부자만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선은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돈

자녀에게 돈의 철학을 가르치는 습관

유대인들은 경제적 독립이 영적 성숙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는 토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의 경제관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진보적이다.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들도 수없이 배출해왔다. 미국 시사 경제잡지 《포브스》가 지난 2020년 세계 최고 부호 순위를 발표했는데 20위권 안에 유대인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조금 앞선 통계인 《더 데일리 프레스》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억만장자 중 48%가 유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을 떠올리면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쉘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래리 엘리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경제력은 미국 경제의 20%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하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놀라운 경제력을 자랑하는 힘의 원천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돈 철학을 빼놓을 수 없다. 유대인들의 돈 철학은 토라에서부터 비롯된다. 토라에서 하나님은 돈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7일간 창조하면서 날마다 한 번씩 총 일곱 번의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가 모두 끝난 뒤 여덟 번째 좋다는 말씀은 황금에 대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창세기 2:10-12)” 여기서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를 영어로 옮기게 되면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이다. 한글 번역으로는 ‘순금’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토브(tov, 좋다)’이고 영어로는 ‘good’이라는 의미다. 이 구절을 들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황금에 복을 내리신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문장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에덴동산에서 금은 사람이 추구하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고 금은 부식되

는 일도 없고 영원불멸하고 완전해서 하나님 성품을 꼭 닮은 귀한 금속이었다.

유대인에게 황금은 두 가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신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자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를 축적하여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를 축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것으로 본다. “돈은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을 부르고 악한 자에게는 악을 부른다(유대 격언).” “돈은 무자비한 주인인 동시에 돈만큼 훌륭한 하인도 없다(유대 격언).”

황금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랑은 이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성씨 중에는 골드(gold)나 실버(silver)가 붙은 이름이 유독 많다. 골드를 포함한 성을 예를 들어보면 골드버그, 골드버거, 골드블룸, 골드브럼, 골든, 골덴카프, 골든슨, 골드와이저, 골드해머 등이 있다. 그리고 실버에는 실버맨, 실버슈타인, 실버버그 등이 있다. 이토록 이름에서부터 돈과 금을 사랑한 유대인이지만 무턱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가 되나니(디모데전서 6:10).”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켄다카(자선) 훈련을 철저히 받는다. 켄다카를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레’라고 해서 물질적 탐욕을 억누르는 데 매우 유용한 행위로 간주한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할 때 켄다카를 통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먼저 가르친 뒤 비로소 돈을 정직하게 버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자선은 남에게서 훔친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돈은 시장을 통해 늘 순환되어야 하며 허투루 써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 돈을 벌 때는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되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다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경제적 독립을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탈무드에서도 아버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 자녀들에게 반드시 장사(비즈니스)를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자식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강도 짓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Kiddushin 29a).”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가지고서 경제 교육을 시킨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게 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



사진 8 - 유대인 성년식, 바르 미츠바

계끔 하고 이웃을 위해 쓸 자선금을 마련하게끔 한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의 경우 13세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 12세 생일 때 각각 ‘바르 미츠바(Bar Mitzvah, 계명의 아들)’ 또는 ‘바트 미츠바(Bat Mitzvah, 계명의 딸)’라는 성년식을 치른다. 성년식은 유대인들에겐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종교적으로 온전한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서 계명을 스스로 알아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본다.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모든 비용을 빼고도 보통 4-5만 불 정도의 돈이 남는다. 그 돈을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 이름으로 저축

을 들거나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돈을 불리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고 작은 상업 거래를 통해서도 돈 버는 법을 익히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돕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 거래 등을 해보면서 물건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지를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돈을 터부시하는 우리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토라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이미 밝히고 있다. 그것은 신실(信實, Integrity)과 정직(正直, Honesty)이다. 신실은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하는 동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무드에는 “너를 지켜보는 눈과 너의 말을 듣는 귀와 너의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 있으니(Pirkei Avot 2:1)”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을 속이지 않고 모든 서비스와 상품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물론 구두 약속 심지어 마음에서 정한 결정조차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신실과 정직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도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신실과 정직이 바탕이 될 때에만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명성은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서 서비스와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명

성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고객들로부터 한결같은 신뢰를 얻어낼 때 만들어진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면류관이 있다. 토라의 면류관, 제사장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 그러나 이 중에서도 명성의 면류관이 이 모든 면류관보다 더 낫다(Pirkei Avot 4:17).”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따뜻해야 한다.

유대인 부모들이 돈과 함께 아이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이제 예외 사항은 아닐 듯하다. 그동안 우리는 돈을 터부시하며 살아왔고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공부하라는 조언만을 반복했다. 사실, 부모님들도 돈에 대해 잘 몰랐고, 우리들도 부모로부터 올바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에서의 생명(Pirkei Avot 6:7)”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맡긴 핵심 과제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가르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실천이 가장 중요하게 이뤄지는 공간은 다름 아닌 비즈니스 현장이다. 탈무드는 “밀가루 없는 곳에 토라 없고 토라 없는 곳에 밀가루 없다(Pirkei Avot 3:17)”라고 했다. 이 말은 비즈니스(밀가루)는 하나님의 말씀(토라)을 실천하기 위해 누구나 힘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뜻이다. 재래시장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주로 파는 정육점 주인을 생각해보자. 그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고객을 상대한다. 공정한 거래를 하는 상인이라면 절대 무게를 속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량한 상인이라면 고객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저울의 눈금을 살짝 속일 것이다. 만약 이런 불공정 거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 고깃집이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로 불신은 확산된다. 그 불신은 결국 시장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홍익희 교수의 책 『유대인 경제사』를 보게 되면 통화의 불신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은전을 주조할 때 아주 미량의 구리를 섞었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

가족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

가족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 단위로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반드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가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한다. 가정에서의 저녁 식사 시간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나는 매우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항상 저녁 식사를 함께하도록 애쓴다.

식사 시간에 나눠 먹는 음식은 사람들 간에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도 대화지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더하는 데는 맛있는 음식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식욕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채운 후에야

소통의 기쁨을 누린다. 이처럼 음식은 서로 간 마음의 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는 등교하랴, 출근하랴 가족들 모두 몸과 마음이 바빠서 여유롭게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고 점심은 보통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먹기 마련이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은 다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학교나 퇴근한 이후에 만나는 시간이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물론 이조차도 부모의 늦은 퇴근이나 자녀의 학원 스케줄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엌과 식탁이라는 공간도 매우 특별하다. 유대인들은 부엌을 가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부른다. 부엌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식탁은 그 음식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곳이다. 즉, 온 가족들이 음식을 매개로 영적인 교류를 위한 대화가 가능한 공간이 부엌과 식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식탁을 유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탈무드는 “만약 세 명이 한 식탁에 앉아 토라 말씀을 주고받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자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을 먹는 것과 같고 토라 말씀을 나누며 먹는다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다(Pirkei Avot 3:3)”라고 했다. 게다가 식탁은 이웃을 대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긴밀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이만한 곳도 없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살

던 유대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늘 앉아서 식사하던 식탁을 가지고 관을 짚는 풍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이웃을 초대해 식탁에서 행한 선행을 내세에서도 잊지 않고 싶어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성막에 싯딤나무(Shittim,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테이블을 놓아둔 이유도 이와 같다. 유대교 전통에서 싯딤나무는 평화(Peace), 선량함(Goodness), 구원(Salvation) 그리고 용서(Forgiveness)를 의미한다. 위 네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머리글자를 따서 모아진 단어가 싯딤이다(Pirkei Avot volume 2, p.354).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어떤 주제가 됐든 부모와 자녀는 서로 대화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한다. 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타인에게 설득하는 습관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유대인 가족 대화』를 쓴 슈몰리 보태악(Shmuley Boteach)은 “우리 집에서는 되도록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려고 노력한다. 저녁 식사는 그 가족이 한 가족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족만의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전화도 초인종도 어

떠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삶의 일부다”라고 책에서 쓰고 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유대인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모와의 대화와 토론을 가장 많이 꼽는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연 씨가 2016년 KBS의 <1 대 100>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과 가장 친했던 유대인 친구를 언급한 적이 있다.

고교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집안 대대로 교수를 해 온 유대인 가문 출신의 친구였다.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날 그 친구와 재즈 클럽에서 밤새도록 놀고 시험을 봤는데 유대인 친구는 놀랍게도 만점을 받았다. 너무 놀라 비결을 물었더니 그 유대인 친구가 말하길 “밥상에서 우리 아버지와 하는 논쟁에 비해 논술 시험의 수준이 낮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조승연 씨는 그 유대인 친구를 회상하기를 그 친구는 아버지와 늘 토론을 즐겼고,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베갯머리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 그 책들도 매우 수준 높은 책이었다고 회상했다. 조씨는 그를 자신의 인생을 바꾼 친구라고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유대인으로서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그로스 역시 자신들이 우수한 이유는 탁월한 유전

자 때문이 아니라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는 수준 높은 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면서 부모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듯 답을 하며 지성을 키운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학교 선생님도 종교적 지도자도 아닌 그들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매일의 저녁 식사도 그렇지만 특히 안식일의 저녁은 가족들을 위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배워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안식일 저녁 풍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안식일만 되면 멀리 있는 가족 모두가 모인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필자를 안식일에 초대한 어느 랍비는 안식일에 연로하신 아버지와 미혼 자녀들 그리고 장인과 장모가 다 함께 모여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족의 의미를 일주일마다 경험하는 유대인의 안식일 풍경은 세상 모든 가정이 본받아야 할 미풍양속이다.

한국은 이미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따로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은 일년에 몇 번 되지 않고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식사한 끼조차 함께 하기를 어려워한다. 가족의 끈끈한 연대와 사랑은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이 되고 말았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가족들과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시절이 그립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식탁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토론까지 했던 기억은 없다. 그저 음식을 먹기 바쁜 시간이었다. 식사 시간도 15분 이상을 넘긴 적이 별로 없었다. 요즘은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말없이 식사만 하는 가족들이 많다. 눈은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스크린을 향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 문화가 무척이나 부러운 이유다.

유대인 지혜의 습관

: 무엇이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는가

초판 1쇄 발행 2021년 4월 26일

지은이 김정완

펴낸이 김옥정

만든이 이승현

디자인 스튜디오진진

펴낸곳 좋은습관연구소

주소 경기도 고양시 후곡로 60, 303-1005

출판신고 2019년 8월 21일 제 2019-000141

이메일 lsh01065105107@gmail.com

ISBN 979-11-971769-7-5 (1330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좋은습관연구소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매하신 서점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비즈니스, 당신의 연구를 습관으로 정리해보세요.

좋은습관연구소에서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네이버/페이스북/유튜브 검색창에 '좋은습관연구소'를 검색하세요.